



노치형 목사
(충주로공동체)

2026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들과 함께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새268, 통202).....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8:31~32.....	가족 중에서
설교	하나님의 자유를 꿈꿉시다.....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새202, 통241).....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하나님의 자유를 꿈꿉시다

들어가는 말

우리는 언제나 자유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명한 곳을 찾거나, 한적한 곳으로 떠나거

나, 혹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함이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이며, 내 가족의 집인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 진리의 틀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틀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방대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첫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 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출 14장).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며, 택하신 백성이 자유롭게 살도록 새 일을 행하십니다(사 43장). 나아가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요 1:1~3, 14:6)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질 때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자유를 찾지만, 현실에는 수많은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자유를 갈구하다 장애물을 만나면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예배와 나눔 같은 시도조차 힘겨

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여라,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 때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거짓과 편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얻은 작은 자유함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일 수 없기에 결국 내적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중심은 평안해집니다. 진리를 따라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내면의 평안이 커질 때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가는 말

2026년,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안정’의 기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받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곧 나의 소유임을 믿는 삶입니다. 비록 어렵고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 사명을 즐기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꿈꿉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 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21:1~8.....	다같이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새40, 통43).....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역대상 9:33~34.....	가족 중에서
설교	찬송이 회복되는 가정이 누릴 복.....	설교자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559, 통305).....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찬송이 회복되는 가정이 누릴 복

들어가는 말

새해를 맞아 저마다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재정의 풍요나 관계의 회복, 혹은 성장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는 올 해 무엇보다 ‘찬송 생활의 회복’을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

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사 43:21).

주야로 멈추지 않는 찬송의 회복

찬송을 담당한 레위인들은 성전 골방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렘전 2:9)인 우리에게도 찬송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 찬송으로 흘러 나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어렵고 마음껏 기뻐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현실에 침

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메마른 땅에서 싹이 트듯 찬송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 이 찬송의 고백이 밤낮으로 이어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멈추지 않는

찬송의 회복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동안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찬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일터,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되어 찬송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시 51:15, 57:9).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가랴의 닫힌 입을 여셨던 것처럼(눅 1:64), 우

리 삶의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다시 이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찬송의 회복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찬송을 방해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불평과 근심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내면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문제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끊이지 않는 찬송 생활의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가는 말

우리의 찬송 생활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송을 어떤 값비싼 제물보다 기뻐하십니다(시 69:30~31).